1. 2006 디지털전자 통상포럼 개최

지난해부터 EU에 수출하는 국산 양문형냉장고에 대하여 EU집행위에서는 반덤핑 조사 및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통상분야에 중요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KEA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로 구성된 "디지털전자 통상포럼"을 발족, 지난 7월 18일(월) 1차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안덕근 교수, 산업자원부 김준동 FTA팀장이 초청되어 전자산업 통상문제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졌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주요 의제로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의 무역구제조치와 FTA 협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동 포럼은 민간부문 중심으로 각종 국제통상 현안들에 접근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DMB 국내외 특허현황 분석

본회 특허지원센터는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분야 선진기업의 특허 현황을 분석한 'DMB 국제특허 분쟁 대응전략' 보고서를 출간, 국내 기업에 제공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DMB 관련 기술분야 선진기업인 일본과 유럽 기업의 특허 보유현황과 전략,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9개월에 걸쳐 특허지원센터의 DMB 특허협의체 회원사와 변리사, 특허청 등 25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이 보고서가 국내 DMB 제조업체의 특허분쟁 해결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유럽기업에 비해 일본기업이 DMB분야 기술특허 출원이 활발하고 기술 또한 원천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재관 특허지원센터장은 "해외 기업의 특허기술을 회피 또는 우회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간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개발 및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제 11회 전자부품 기술대상 추가 참가신청

본회가 주관하여 전자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기업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개최해 온 「전자부품 기술대상」이 11년째를 맞이했다. 올해에도 전자부품업계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행사 포상업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대상
- 전자부품 및 소재 제조업체 및 개발자(1년 이내 개발된 부품)

참가방법
- 신청기간 : 2006. 8. 18(금)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제품/개인부문(이력서 포함) 신청서 각1부

포상내역
- 제품부문 :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산자부장관상 8점 등 총27점 포상
- 개인부문 : 산자부장관상 등 총 14명 포상

문의 및 제출처
- 산업총괄팀 장석준 과장, 이영림
- Tel : 02) 553-0941 (Ext. 234, 243),
- e-mail : sjjang@gokea.org, young@gokea.org

4. IFA, 국내 60여 가전업체 참가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06'에 국내 60여 가전업체가 참가, 국내 기술력을 과시한다.

IFA 한국대표부인 한독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60여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7월 7일 밝혔다.

이 중에는 덱트론, 휠스에프엔씨, 하스퍼, 에이텍, 디지탈디바이스 등 중견 디지털TV업체를 비롯해 디지털큐브, 유경테크놀로지, 네오솔, 데인테크, 사이텍시스템 등 휴대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와 내비게이션 · DMB 단말기 업체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카미디어 전용홀에서 세계 유수 업체들과 함께 제품을 홍보, 객관적인 기술 평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자산업진흥회 주관아래 16개 IT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공동관도 4.1홀에 마련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 DM총괄 최지성 사장이 '디지털 르네상스(가칭)'를 주제로 개막 기조연설을 하며, 이밖에 하만 인터내셔널의 시드니 하만 회장, 로열필립스전자 루디 프로부스트 사장, 도시바디지털미디어 요시히데 후지 사장 등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

5. GSM 특허분쟁 예방보고서 배포

본회는 7월 28일 GSM 및 GPRS 관련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자, 대응방안 수립과 라이센스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작성,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GSM 및 GPRS 표준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수십 개의 현안 특허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3건의 현안특허를 선별하고, 선별된 현안특허들에 각각에 대한 기술 분류, 청구항 분석, 표준과의 매핑 여부에 대한 판단 및 GSM 단말기의 제조, 판매가 현안특허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견해 등을 수록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 현안특허의 기술내용과 표준과의 매핑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특허권자와의 라이센스 및 로열티 협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 특허권자들의 로얄티 공세와 무차별적인 저가 휴대폰의 살포로 인해 국내 중소 단말기 업체는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파산한 상태이다.

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이번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더 많은 현안특허에 관한 기술 분석을 후속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선진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특허 라이센스 협상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국내 GSM 단말기 업체에 실질적인 대응방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12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 중인 GSM 단말기는 오는 2007년에는 약 15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GSM 또는 이로부터 파생한 차세대 단말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휴대폰 단말기 수출비중 중에서 GSM 단말기는 62.95%를 점유하고 있다.